

WEEKLY THEME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선택_과목

#위클리_테마



학교 밖에도 선택 과목 있다

공동 교육과정 활용법

대입에서 교과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 등급, 즉 내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을 포함해 지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연계 과목 이수 여부와 과목 간 위계, 학습 내용까지 다면적으로 살펴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교과전형이나 정시전형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가기도 합니다. 한데 개별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공동 교육과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2025학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지금보다 더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공동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현재 운영 상황과 활용법을 짚어봤습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기대연 교사(경북 현일고등학교) · 박진형 교사(경남 창원여자고등학교) · 윤슬기 교사(충북 청주고등학교)
 임진택 책임입학사정관(경희대학교)

선택 과목 주목하는 대입

대입, 교과 평가 강화 추세

2024학년 대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온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완성된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수상 기록, 독서 활동 등이 아예 미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생부를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 종합전형에서 교과 관련 기록의 영향력이 커졌다. 여기에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교육과정이 안착되면서, 교과 성적을 포함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다 눈여겨본다. 특히 주요 대학의 교과 평가는 종합전형을 넘어 진행되는 추세다. 2023학년 서울대는 정시에 교과 정성 평가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는 수시 교과전형에 학생부를 정성 평가하는 서류 평가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들은 최근 몇 년간 전공 연계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가 2021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선도적으로 제시했고, 지난 3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도 공동 연구한 ‘대학 자연 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경희대 임진택 책임입학사정관은 “지난해 달라진 대입 환경을 고려해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조정하면서 교과, 특히 선택 과

목의 비중이 커졌다고 알린 바 있다. 지금보다 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목 수가 늘어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선택이 반영되고, 세트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과목 이수 이력을 보다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앞두고 공동 교육과정 주목

선택 과목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개별 학교의 과목 개설 문제다.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과학Ⅱ과목 개설이 쉽지 않다. 2025학년에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이 더 세분화된다(표 1).

이런 상황에서 공동 교육과정이 대안으로 꼽힌다. 개별 학교에서 선택자가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교육청 단위에서 개설, 온·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 해당 학교에 특정 교과 수업을 개설해 관내 학생에게 이수 기회를 주거나, 인접 지역 학교를 묶어 운영하지 않는 과목을 서로 나눠 개설해 연관 학교 학생들의 신청만 받는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학기초나 학기말에 강좌명과 수강 인원이 공개되면 교육청별 홈페이지(표 2)에서 수강 신청을 한 후, 최소 인원을 충족하면 방과 후나 토요일, 방학을 이용해

표 1_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 일부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수학	공통수학Ⅰ·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과제탐구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Ⅰ·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역사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	통합과학Ⅰ·2 과학탐구실험Ⅰ·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수업을 한다. 학교 수업과 마찬가지로 사전 계획서에 수업 및 평가 내용을 공유, 이에 맞춰 진행한다. 교양 교과는 이수/미이수(pass/fail), 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는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되며 세특도 기재된다.

경남 창원여고 박진형 교사는 “공동 교육과정은 일반 수업보다 참여 학생이 적고, 실험이나 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교사 입장에서선 학생 관찰과 기록이 용이하다. 학생 입장에서선 진로나 학습 분야에 깊이를 더할 수 있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입시 측면에서도 관심 분야에 대한 학업 의지나 자기 주도성,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단위 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교원이 적어 과탐 II 과목 개설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이들 지역은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 과목 이수 이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커지면서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표 2_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홈페이지
서울시교육청	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콜라캠퍼스)	collacampus.sen.go.kr
경기도교육청	경기고교학점제-공동교육과정	more.goe.go.kr/hagjeomje/subList/30300001175
대구시교육청	대구공동교육과정	www.dge.go.kr/gongdong
인천시교육청	꿈두레공동교육과정	www.ice.go.kr/main.do?s=hakjeom
광주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7th.gen.go.kr/high
대전시교육청	너두나두 공동교육과정	djehcredit.com/sugang
울산시교육청	배나무 공동교육과정	lteus.use.go.kr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sjecampus.com
강원도교육청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	kwe-gongdong.com
충북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hscredit.cbe.go.kr
충남도교육청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bridge.edus.or.kr:442/comEdu
전북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jbecredit.kr/lecture
전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공동교육과정	hscredit.jne.go.kr
경북도교육청	스마트 교육과정	credit.gyo6.net
경남도교육청	경남꿈 공동교육과정	charm.gne.go.kr/charm
부산시교육청	다(多)고르 공동교육과정	co-school.pen.go.kr
제주도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jhscs.jje.go.kr

자료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및 각 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홈페이지



PART 2

확대되는 공동 교육과정

개설 과목·참여자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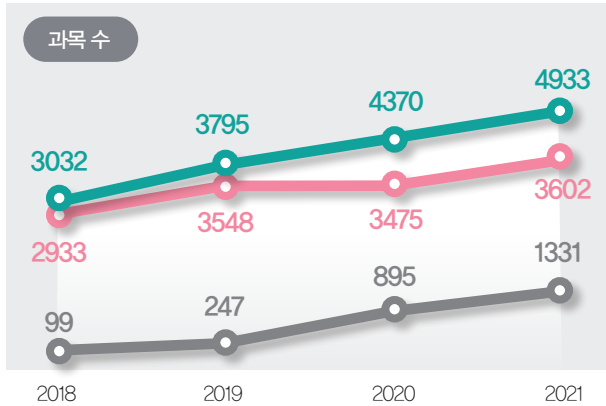
공동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8년이다. 고교에서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며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학교 간 격차를 보완하는 장치로 부상했다. 교육청에 따라 나름의 브랜드로 특화해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왔으며, 학생들도 과목 이수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참여자가 늘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는 2018년 3천32과목에서 2021년 4천933과목으로 62.7% 증가했다(표 3). 참여 학생 수는 2018년 4만4천362명에서 2021년 6만2천329명으로 40.5% 늘었다. 특히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수가 급증했다. 앞으로도 일부 실험·실습 과목 외에는 온라인 강좌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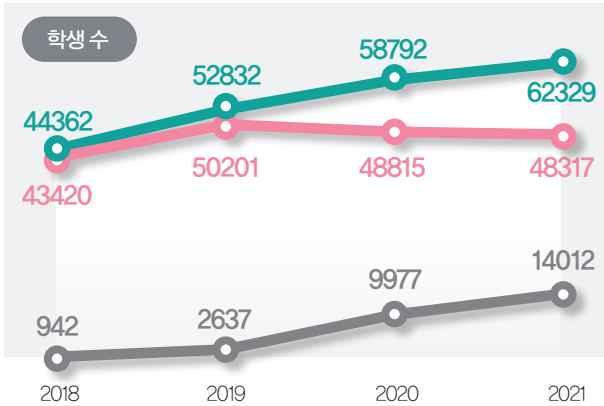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통계 기준상 오프라인 강좌로 잡히지만 온라인과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의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비도시 지역의 의존도도 크다. 이를 고려해 교육부는 **공립 온라인 학교** 개설·운영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공립 온라인 학교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현재 공동 교육과정 수업은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활용하는데,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은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이수할 수 있다. 올해 광주 대구시 인천시 경남도 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개교한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권역당 1개교씩 개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나 선택자가 적은 소인수 과목 등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수업을 주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놓여준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도 지원한다.

표 3_ 2018~2021년 공동 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 및 참여 학생 수



전체 오프라인 온라인 자료 교육부



심화 과목→직업 교육, 개설 과목 다양

공동 교육과정에선 어떤 과목이 개설될까? 주로 <교육학> <심리학> <논술>과 제2외국어 등 생활·교양 교과, <고급화학> <물리학실험> <지역이해> <드로잉> <스포츠개론> 등 탐구 및 예술·체육의 진로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의 비중이 크다. <빅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등 컴퓨터 관련 과목도 다수 눈에 띈다.

경북 현일고 기대연 교사는 “상위권 학생들은 지망 전공과 연계된 심화 과목을 선호한다. 특히 자연 계열은 고급·실험 과목에 쏠린다. SW 과목은 지망 계열을 불문하고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고 윤슬기 교사는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고급화학>의 개념·이론을 끌어와 해결한 사례가 종종 있어 수업을 개설하게 됐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제작> <간호의 기초> <경찰탐구>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식품과 영양> <패션마케팅> 등 일반 고교에서 보기 힘든 과목들도 이름을 올렸다(표 4). 교육부에 따르면 심화 학습 성격이 강한 진로선택 과목·전문 교과와 실용·진로·신산업 관련 교

과의 개설 비율이 6:4 정도다. 복수의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준은 흥미와 진로다. 공동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업 수준과 관심 분야를 반영해 개설해야 한다. 보통 교과에는 없지만 진로나 흥미 분야를 탐색해볼 수 있는 과목을 제공하는 것도 공동 교육과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 내 특성화고나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한 과목이 늘 전망”이라고 답했다.

참가 학년의 변화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2가 가장 많지만, 최근 고1 참가자가 고3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2, 3은 진로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위주로 선택한다면, 고1은 생활교양 교과목을 많이 선택한다. 평가 부담이 적고 과목 선택을 연습해보는 효과도 있다. 공동 교육과정에서 흥미로운 과목을 골라보고, 수업을 들으며 흥미나 적성을 모색해 고2 때 배울 과목 선택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알렸다.

정규 수업 ‘보완’ 역할, 스펙 아닌

진로 탐색·심화 학습 창구로 활용하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만큼 내실 있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지역에 따라 운영 상황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동 운영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학교 운영을 통해 내실화와 지역별 격차 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 교육과정은 교육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 기준의 차이가 컸고 지역별 격차도 벌어졌다. 이에 2022학년부터 교육부가 운영 안내서를 만들어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수요가 많다면 복수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교육청에서 수강 인원을 제한하거나 취약 지역 학생을 우선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수강생이 30명에 달하는 온라인 강좌도 종종 발견됐는데, 2022학년에 온라인 강좌당 수강생을 10~15명 선으로 조정했다. 또 온라인 학교 개설로 일선 고교 교사·학생의 부담과 지역별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동 교육과정은 어디까지나 보완 책임을 강조했다. 최대한 학교 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현재 대입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 책임입학사정관은 “정규 수업에 비해 시수가 적고, 대부분의 수강생에게 성취도 A를 부여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학생부의 공동 교육과정 이수 기록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기 주도성이나 학업 의지 측면에서 살핀다. 정규 수업의 아쉬움을 보완하는 게 아닌 입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윤 교사도 “일부 학생들은 공동 교육과정의 수강 횟수나 특정 과목 수강 자체가 하나의 스펙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한 수강 여부보다는 수업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학생들에 따르면 면접에서 공동 교육과정과 관

련한 질문 비중이 매우 높다. 면접관으로 나선 교수들이 학생의 기록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파고드는 데, 형식적으로 수업을 들은 경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한다.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 일반선택 과목 성취평가 전환, 공동 교육과정 확대 및 내실화 등을 고려할 때 변화될 수는 있지만, 정규 수업 안에서 최선을 다한 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지역 내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운영 과목을 확인하고, 중3·고1의 경우 흥미로운 강좌를, 고2·3은 학업 역량을 고려해 응용·심화 과목을 선택한다면 진로 탐색이나 학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수행평가 비중 큰 공동 교육과정, 탐구 활동 꿀팁

공동 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크다. 주로 주제 탐구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때 전공(계열)적합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강 과목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해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한다.

윤 교사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을 ‘지원 전공 관련 내용 탐구’로 여겨 지망 전공 개념의 단편적인 활용 사례만 탐구하는데, ‘대학 전공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바라보고 심화 과목에서는 수업 내용을 깊이 있게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길 추천한다. 예를 들어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 전공 분야 관련 화합물을 조사하거나 이성질체의 분리 방법을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것보다는 거울상 이성질체의 분리에 사용되는 비대칭 촉매의 작용 원리를 수업 중에 배운 입체 구조 및 메커니즘과 연관지으면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교과 특성에 맞게 심화 학습할 수 있고, 교사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수환

경희대 약학과 1학년
충북 청주고 졸업

“화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도전한
〈고급화학〉 수업,
전공 선택까지 영향 줬죠”

Q.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유는?

학교 정규 수업에서 한걸음 나아가 심화 학습을 해보고 싶었어요. 수학 과학 교과가 흥미로웠는데, 고교 수업에서 배운 개념이 어떻게 심화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공동 교육과정에 과탐Ⅱ보다 난도가 높고, 대학에서 배우는 과학과 가까운 고급 과목들이 개설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업에서 배운 과학 개념이나 사례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내 주변 사례에 적용한 주제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화학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문구용품부터 자동차 연료까지 화학 화합물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든요. 결합하는 구조에 따라 같은 원소가 전혀 다른 외형·효능의 화합물이 된다는 점도 재밌었고요. 새롭고 깊게 화학을 보는 시각을 얻고 싶어 〈고급화학〉 〈화학실험〉을, 화학과 관련 깊은 생명과학 분야도 심화하고 싶어 〈고급생명과학〉 〈생태와 환경〉을 공동 교육과정으로 이수했습니다. 고2~3학년 방학 때 주중 매일 3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Q.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을 꼽는다면?

고2 때 온라인으로 이수한 〈고급화학〉이요. 선생님께서 수업 중간 중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개념 퀴즈나 활용 사례를 알려주며 학습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셨는데요. 덕분에 〈화학Ⅰ〉에 나온 **오비탈**과 관련된 심화 이론·사례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이성질체**와 양자화학 등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여러 분자의 결합 원리, 구조를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실사례를 함께 살피며 선생님·수강생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념을 확장·심화할 수 있었죠. 학문적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지적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관련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돼서인지, 타 대학 면접 질문의 대부분이 〈고급화학〉 관련 내용이었어요. 무엇보다 과학, 특히 화학에 정말 흥미가 있고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화학 관련 전공을 조사하고, 희망 대학의 관련 학과를 찾아 교육과정에서 화학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봤죠. 약학과가 단순히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과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 화합물을 연구하는 전공이라는 점을 인식했고요. 지난해 서울대 바이오시스템학과, 고려대 화공생명공학부 등에도 지원·합격했는데, 화학 지식을 활용해 약학 분야를 탐구해보고 싶어서 경희대 약학과 진학을 결심했어요.

Q. 후배들에게 조언해준다면?

공동 교육과정 수업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제대로 공부한다면, 관심 분야의 지적 호기심을 깊이 있게 채울 수 있는 기회예요. 막연히 결정한 지망 전공, 진로가 적성에 맞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고요. 혹은 잘 몰랐던 자신의 흥미나 재능을 찾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과목들이 있고, 요즘은 더 많은 과목이 개설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의 안내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 도전해보길 추천합니다.

오비탈: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

이성질체: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 원자들의 연결 상태가 다른 화합물

탈리도마이드: 1950~1960년대에 입덧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다 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판매 중지된 약물

Q.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계기는?

모교가 제2외국어중점학교라 일반고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수업이 개설됐고,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매 학년 인천 지역 공동 교육과정을 안내해주셔서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고교 입학 당시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였고요. 학교 수업은 정해진 틀이 있는 만큼, 모교의 특성화 과정이나 공동 교육 과정을 잘 활용하면 전공 관련 역량을 더 심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도전했어요. 1학년 때는 국제학부를 희망해서 모교에 개설된 <프랑스어>를, 전자공학으로 진로가 바뀐 2학년부턴 3학년 1학기까지는 <로봇소프트웨어개발> <전기회로> <고급물리학> <인공지능기초>를 이수했어요.

Q.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을 꼽는다면?

2학년 때 방과 후 타 학교로 이동해 수강했던 <로봇소프트웨어개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최근 전자공학을 활용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반도체·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요. 대학 이후 학습·진로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코딩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선택한 수업이었어요. 파이썬의 기초를 배우고, 마지막 단계에서 각자 원하는 로봇을 설계하고 직접 조립해 움직이게 했는데요. 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애물 감지 기능을 접목해 로봇을 제작했어요. 까다로웠지만,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제가 상상한 기능과 외형의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인문 계열 전공에서 자연 계열, 그것도 공학으로 진로를 틀면서, 학습 면에서 부담이 꽤 컸거든요. 일반 교과 수업에서 개념을 학습한다면, 공동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응용해보니 재밌더라고요. 공학에 대한 흥미를 재확인했고, 이는 어려운 수학 과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동력이 됐어요. 시간을 쪼개 다른 공동 교육과정 강좌에 도전한 것도 같은 이유였고요. 또 <고급물리학>을 들어보니 <물리학Ⅱ>와 대부분 내용이 겹쳐 어렵지 않았어요. <물리학Ⅰ> <물리학Ⅱ> <고급물리학>의 개념 심화 과정을 복기하면서, 대학에서 어떻게 물리를 깊게 다룰까 궁금해졌고요. 공학으로 지망 전공을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Q. 후배들에게 조언해준다면?

개인적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대입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면접 질문의 90%가 공동 교육과정 관련 질문이었어요. 면접관이 신기해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로봇 바퀴 회전 수 설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즐겁게 충실히 임한다면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관심 분야와 과목을 직접적으로 활용·응용해볼 수 있는 과목이나,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렵지만 전공과 관련있는 강좌를 수강해보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김서영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1학년
인천 신현고 졸업

**“국제학부에서
공학으로 진로 변경,
두려움 지우고 확신 안겨준
공동 교육과정”**